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선원사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우리 몸도 수많은 생명체 사는 중생국토

15면에서 계속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발자국 때어 놓은 것이, 짙어지고 오시진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왔는데 그 발자국 때어 놓은 것은 한 발짝 때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모두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삶은 고(苦)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자라서 팔자·운명이라든가 고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현명하다면 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나'라고 세울 게 없고, 내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내 몫이 있다고 할 게 없고, 모두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물 한 그릇을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까?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합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는가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심성의학이라고 해도 되고,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되고, 심성 천체물리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워서, 내 안에 모두 갖추어 가지고 여여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육조스님은 '내가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여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또 불성이 있는 까닭에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는 까닭에 만법을 들이고 낼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우리한테 항상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사람이 그냥 먹고만 살면 제일인 줄 알지 마세요. 그렇다고 누가 굶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런 자기만



그림·최주현

배타고 바다 건널때
 우왕 좌왕하지 않고
 선장을 믿어야
 무사히 목적지 도착

 뿌리서 에너지 얻듯
 내뿌리 근본주처
 믿고 의지해야
 싹 푸르게 살수있어

한다면 될 수 있다 라는 얘길 했지요. 그랬더니 어느날은 아주 즐겁게 웃으며 오셨어요. 얘기인 즉 어느날 김치 향아리를 뒤으며 아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속 씩씩하던 아들이 어디서 튀어들어오더니 하는 소리가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왜 불쌍한 어머니 앞에서 속을 썩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은 너무나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 되었죠.

이 마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체가 없는 마음이 이게 영혼도 건널 수 있고, 천도 재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이 흥가질때라도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말입니다. 영은 영대로 불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많이 깨내 써도 즐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고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낚아서 기르는 앵들은 태고를 안해서 못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는 자라나는 앵들한테도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

남 말씀은 옳아요.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려오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틀려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은 그 '나'가 각자 나인데 '각자' 소리를 안했으니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 하나로만 본다 이거죠. 나를 믿지 않고 타신을 믿거나 타인을 믿는다면 그건 도깨비 장난과 같으니라. 즉 귀신 일이나 같으니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 당시는 알고 계셨는데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각자'라고 얘길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넘어가서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연방 다시 돌아가면서 이걸 가르쳐야 할 문제들을 정신계의 근본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정신계는 속 배웠으니까, 왜? 예수님이 말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왜? 예수님부터 알고 진짜로 믿어서, 자기 주처를 믿어서 알면 부처님의 주처도 틀 아니게 알텐데 이런 거주의 모습을 보고 믿었으니 그것이 될 만한 일입니까? 배우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넓지 못해서 그런 분을 누가 되게 하고 이러죠.

나
 도 예전에 가톨릭교를 좀 믿었 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만 뒀느냐 하면 그만둔 것도 아니고 안 그만 둔 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야하는데 나는 내가 잘못 하고 신부님한테 고해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위안은 받을지언정 내가 벌어진 것을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었느냐 여쭙니다. 문제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물론 고달픈게 살아가더라도 한 번 그렇게 즐겁게 생각을 잘 하면 너무나 즐겁게 풀립니다. 자신이 잘못한다고 욕을 하고 때린다면 자신이 그대로 되고, 그렇지 않고 남편이 든지 자식이든지 좀 마음을 너그럽게 써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물갈이 살지, 또 산 같이 살지, 한 칠 살다가 모습이 없어질텐데 뭘 그대지 그렇게 원망을 하고 살까? 하고 슬그머니 좀 놓고 싶네 지혜가 좀 더 생기고 행복해질텐데 그걸 놓지 못하고 살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는게도 과거로 자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자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팔자·운명이라는 얘기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엇갈려서 되다 보니가 어떠한 것도 내 부도 아닌 게 없고, 어떠한 미운 사람도 내가 전자에 저렇게 미웠던 그 시절이 있었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진실로 이런 말하기까지는 웃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그러다가 여러분하고 틀 아니게 살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저 풀아닌 도리를 알려드렸으면 편리하게 자유권을 얻으실텐데, 하는 생각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라 한 생 동안 살다가 차원이 낮으면 또 짐승으로도 될 수 있고, 차원이 높으면 사람으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차원에 따라서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살다보면 한 생판만 아니라 세세생생을 고(苦)에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고, 온비개비처럼 모습을 바꾸어 가면 구제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차원이 더 높아지면 정말이지 선신으로서 어딜 가든지 손색이 없고 앞에서 이끌어 가는 대장부가 될 겁니다.

'너와 나와 이미 죽이니 이름 없는 이름이여.
 너와 나와 함께 죽으니 이름 없는 이름이여.
 자타가 둘 아니게 더불어 나뉘니 이름 없는 이름이여.
 안과 밖이 없이 텅 비어 고요하니 들이난 둘의 이름 없는 이름이여.
 이름조차 없는 그 이름이여'

여러분도 이 도리를 꼭 알아둬야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도 자기 자유대로 태어나시게 되고, 또 태어나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권이 있어서, 제발 좀 그렇게 자유권을 얻으셔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한발짝 떼면 한발짝 없어지듯
 '나' 세울게 없고 내몸 없기에
 합이 없이 하는 것이고
 어떤 여건도 썩가 될수 없지요

더 삶의 차원과 인생의 차원, 또는 우주 삼라간상의 차원 이런 모든 것을 한번 결부시켜서 차곡차곡 생각해 보신다면 지혜로워지고 바다와 같아져요. 그럼으로써 어떠한 여건도 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신(神)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성신, 즉 주처, 자기 주처가 있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씩이 있는 것이지, 그 씩이 딴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에너지를 주시오.' 하고 애를 써도 에너지가 탄대로 안가요. 자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를 타고 허러바다를 건너가는데 선장은 본체만체하고 자기네 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냥 뒤집히겠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여!'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의별신의 이름을 다 불러대고 야단법석들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모든 마음을 선장한테다 맡겨놓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군데 한마음으로 맡겨 놓는다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배가 뒤집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그 지 의식에서 나오는 유전성이나 영계성·업보성·인과성·세균성 이런 것이 특출 튀어나오더라도 내 근본주처에다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내 뿌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너만이 싹을 푸르게 살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할 때 그것이 관하는 대로 내보로 통신이 돼서 대보에서 사대로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의 이치란, 통신처라는 것은 빛보다도 더 빠르고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대로 통신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정수로 올라갑니다. 그럼 정수는 필듯하느냐?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생

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것만도 아니에요.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즉 말하자면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 이라고만 생각을 안한다면 이 세상 의 인간뿐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 인간까지 살아나가는 그 원리를 다 알게 됨으로써 모든 생명을 내 생명이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아플같이 생각하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마저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

는 구나, 초월해서 돌아가는 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알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머리 꺾지 않았습디다. 절대요!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리를 알게 된다면 내 마음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뿌리가 자기 불성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부처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들 때도 오직 '너만이 내게 할 수 있어.' 하면 의사가 돼 줍니다. 또 '너만이 이 가난한 것을 좀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아.' 하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보디가드도 돼 줄 수 있고 이끌어주는 길잡이도 돼 줄 수 있고 해결사도 돼 줄 수 있고 모든 게 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원자에서 입자가 나와서 다 조절해 주듯이 자기 주

인공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인공, 내 불성은 다 팽개치고 그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성신이 없다면 자기 몸통이 나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송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근본이 빠지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변연히 알면서도 왜 진실된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합니까? 싹은 자기 뿌리를 의지해서 푸르게 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리고 진짜로 '주인공을 내가 믿고 정말 네 나무는 내 뿌리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관하십시오. 그저 이름만 '주인공! 주인공!' 부르지 진짜로 믿지를 않아요. 자기를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누가 믿어요. 이 세상에 누가 대신 살아준다고 바깥을 믿습니까? 이 자기 자성 자체가 바로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인데 말이에요.

어떤 신도님 얘기 들어보면 '스님,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가정이 너무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있으니 들었고 행했고 잘 사는 거지 누가 해준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떠한 게 와도 어떠한 용도가 닦쳐도 결결 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죠. 사람이 죽는 영혼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산 사람이 죽는 영혼이나 둘이 아니에요. 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영이란 말입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하러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을 수 만개를 여기다 집어 넣어도 영이지, 두드러지지 않아요. 돌로 보지 않는다면 그냥 없이는 거예요. 그 묘한 법을 여러분은 써보지도 못하고 항상 쫓겨다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바쁜 게 자녀를 키우고 가족이 화합해서 사는 문제죠. 요즘 이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이들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걸로만 들고서 버린다면 가정을 잘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살겠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 자식이, 이불 사줄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욕을 하고 때리고 한다면 그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거니까 마음으로 고쳐야지 어떻게 때리고 말로 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이 마음의 주인공은, 자식이라는 것과 부모라는 것이 가슴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가슴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관하면 거기까지도 불이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마음의 그 깊은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도 거기에 모두 결부됐다는 것,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하도 속을 썩이니까 그 어머니가 자꾸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들어오면 부드럽게 대해주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지 않아. 저 아들이 저러지 않게 해.' 하고 자꾸 관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나 부부 시간이나 마음으로 벌어진 일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을 보면 부드럽게 대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주고 이렇게

여시아문의 새책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젊은 도도는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아들'과 '대행 스님'이 나는 이 책의 용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벗어낸 깨달음의 화음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역음
 40쪽
 여시아문 편집
 12,000원
 이 책이 소개된 300여 항목의 삶의 화음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 (94.10.15)부터 14호(97.9.29)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연재되었던 것들을 주저없이 묶은 것입니다.
 여시아문 출판은 '불은 바란 것이 어둠도 없으며 진해졌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협찬 주인공